

Investment Strategy 2026.9.3



글로벌

마켓 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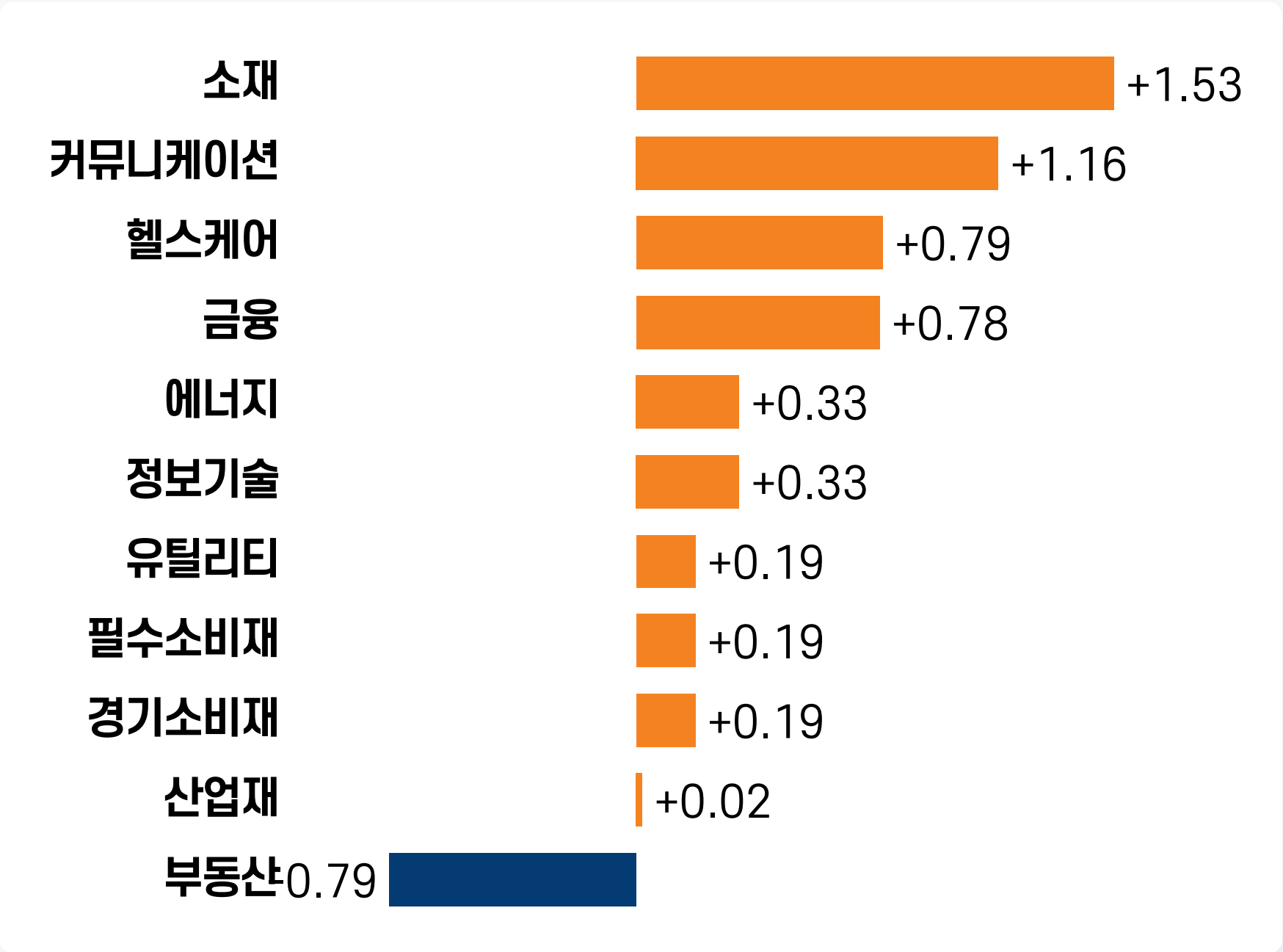
금리 상승 일단 멈춤
미국증시 반등

미국증시 주요지수

지수	종가	등락률
다우존스 산업평균	53,061.95	+0.56%
S&P500	7,666.60	+0.46%
나스닥 종합	26,217.83	+0.45%
나스닥 100	29,143.33	+0.23%
러셀 2000	2,953.16	+1.13%
필라델피아 반도체	11,339.25	+0.45%
VIX	15.20	-6.98%

주: 작성 시점 기준

S&P500 업종 지수



주: 작성 시점 기준

미국 증시 4거래일만에 반등 대부분 업종 상승

- ✓ 주춤한 금리 상승세, 미국 증시 4거래일만에 반등
- ✓ 델 실적으로 다시 확인한 AI 인프라 수요도 상승 재료
- ✓ S&P500 업종 내 부동산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
- ✓ 트럼프 “대 이란 군사 작전,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”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유가·금리 숨 고르기 그러나 여전한 상승 압력

- ✓ 미국-이란 갈등에도 국제유가 급등 후 숨 고르기, 제한적 상승
- ✓ 부진한 고용지표와 온건한 뉴욕연은 총재 발언에 국채금리 보합
- ✓ 뉴욕 연은 총재 “인플레 점진적 하락 추세..지켜봐야 ”
- ✓ 금리 상승 압력 여전..10년물 장 중 4.82% 상회, 34개월래 최고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예상 밀돈 ADP 민간 고용 복잡해진 연준 선행법

- ✓ 미국 ADP 8월 민간고용 전달 대비 3.8만명 증가..1월 이후 최저
- ✓ 신규 고용 대기업, 교육/보건에 집중..제조, 전문서비스는 감소
- ✓ 4일 고용보고서도 ‘둔화’ 가리킬 시 금리 인상 경계 후퇴 가능성
- ✓ 연준 베이지북 “고용, 전반적으로 아주 약간 늘어”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승 특징종목

엔비디아 +3.21%

서버 제조사 델이 호실적과 가이드언스
상향을 발표하며 강력한 AI 데이터센터
수요를 재 확인

델 테크놀로지스 +15.81%

강력한 AI 서버 수요 영향, 기대 이상의
전분기 실적과 함께 현재 진행 분기와
연간 실적 가이드언스를 대폭 상향

오라클 +3.13%

제프리스, 목표주가 320달러에서
290달러로 하향. ‘투자심리가 비관의
정점에 가까워졌다’며 ‘매수’ 의견 유지

깃랩 +9.98%

기업 AI 활용 확대 따른 SW 개발
플랫폼 수요 증가, 전분기 호실적과
기대 이상의 연간 실적 전망 공개

AST 스페이스모바일 +11.83%

베렌버그, 투자의견 ‘매수’와 목표가
92달러로 커버 개시. “2028년까지
매출 300% 이상 증가 기대”

우버 테크놀로지스 +1.61%

전 세계 인력 약 10% 해당하는
3,300명 감원, 로보택시 등 핵심
사업에 자원 집중 목적

주: 작성 시점 기준

하락 특징종목

팔로 앨토 네트워크 -9.28%

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
연간 가이드런스도 상향. 실적 기대감은
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인식

팔란티어 테크 -5.81%

8월 한 달 50% 가까이 급등한데 따른
차익 매물 소화

브로드컴 -0.66%

전분기 매출 AI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
대비 86% 증가..현재 분기 가이드런스는
예상 하회, 시간 외 거래서 혼조

크레도 테크놀로지 -20.04%

전분기 매출과 조정 이익 기대 이상.
매출총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예상
하회, 실망 매물 출회

몽고 DB -13.54%

기대치 상회한 전분기 실적과
가이드런스에도 높아진 눈높이 크게
뛰어넘지 못한데 따른 실망 매물 출회

스노우플레이크 -4.37%

AI 코딩 도구 고객사 빠르게 증가, 기대
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가이드런스..시간
외 거래서 15% 이상 급등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품 동향

WTI (10월물)	91.01달러	+0.88%
브렌트유 (11월물)	95.63달러	+0.67%

✓ 변동요인

미국-이란 갈등 고조, 미국 원유 재고 대폭 감소 등이 유가 상승 요인. 금리 하락에 국제 금가격과 은가격은 강보합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채권 동향

미 2년물	4.3690%	-3.1bp
미 10년물	4.7780%	-2.0bp
미 30년물	5.2571%	-1.6bp

✓ 변동요인

미 국채 금리 소폭 하락. 최근 금리 급등 따른 부담감 소화된 가운데 민간 고용 지표 부진과 뉴욕 연은 총재의 온건한 발언도 금리 하락 요인. 다만 장 중 하락하기도 하던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금리 낙폭 제한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외환 동향

달러인덱스(DXY)	99.555	-0.12%
달러-원	1,368.70	-1.70원
달러-원 NDF 1M	1,358.00	-10.15원

✓ 변동요인

엔과 캐나다달러 각각 당국 개입과 긴축 가능성 반영해 강세, 달러 약세. 금리 하락도 달러 약세요인. 달러-엔, 일본 당국 레이트 체크 관측에 장 중 158.2까지 급락(엔화 급등)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Complian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